



## 2 가마가키노코미치

불필요하게 된 가마 도구를 쌓아 올려 만들어진 "가마가키"가 늘어선 총 길이 400m 정도의 가늘고 구불구불한 길. 예전에는 요업 생산으로 번성했던 호라 지역의 중심 거리였고, 가마에서 일하는 직공들이 도자기와 연료를 메고 왕래했던 땀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마 가게의 저택이 들어서 있으며 주변에는 가마 제조소·갤러리가 있어 세토모노 마을의 풍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는 "가마가키노코미치 축제"가 개최됩니다.

## 3 가마가키노코미치 갤러리

에도시대(1603~1868)에 건축된 도자기 제조소 저택을 이용한 갤러리. 주로 호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계절에 맞춰 기획전도 개최되어 호라 지역의 역사가 담긴 건물에서 옛 분위기에 싸여 현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개관 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  
**개관일** 기획전 개최 시 토·일·공휴일에만  
**입장료** 무료



## 4 가마가키노코미치 자료관

도자기 생산을 하고 있던 도자기 제조소 저택을 1995년에 개조한 건물들. 부지 내에는 안채, 창고, 별채(객실용)가 있습니다. 1869년에 먼저 안채가 세워진 후 창고, 별채 순으로 지어졌으며 현재는 부지 내에 자료관과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근대 양산 타일 제1호로 불리는 "혼교타일"로 장식된 욕실과 화장실은 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개관 시간** 오전 10시~오후 3시  
**휴관일** 매주 수요일, 연말연시 **입장료** 무료



## 5 하쿠류 다이묘진

먼 옛날, 호라 지역에서 "엔고로 가계"를 하고 있던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좀처럼 낫지 않아 점쟁이에게 물어보니 "이 땅에서 죽은 도망 치는 무사의 원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화신이 백룡이었기 때문에 비석을 세워 "하쿠류상"으로 모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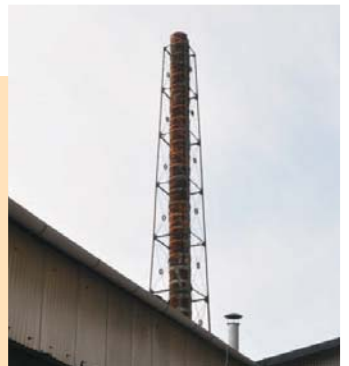
1962년 고세토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 공사에 수반되어 지금의 위치에 돌담을 쌓아 산신, 천신과 함께 모셔졌습니다. 현재는 하쿠류상에게 계란을 바치고 자녀가 생길길 비는 참배객도 있다고 합니다.



## 6 오지가마

가마 현장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매우 큰 규모의 중유가마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대에 호라 지역뿐만 아니라 세토 풍경을 특징짓는 중유가마의 굴뚝이 지금도 남아 있어 과거 요업 생산으로 급성장했던 당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지 내에는 1900년에 건축된 "모로"라고 불리는 공방과 도방 겸 갤러리가 고지대에 있어 거기에서 호라 지역의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갤러리 영업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휴업일** 매주 일요일



## 7 야조칸논·야조코보

야조칸논의 유래는 1831년에 한 여성이 "중기"로 고통하다 사망했을 때 "자신을 모시면 반드시 치료된다"라는 말을 남겨 관음상을 모시게 된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우측에 있는 야조코보는 1867년에 히가시보라초의 남성이 28세에 사망했을 때 유언으로 "복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한 것에 유래되어 야조칸논과 나란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금 위치에서 300m 정도 동쪽 지점에 있었는데 1961년에 현재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 8 가마아토노사

"가마아토노사"에는 이전에는 에도시대(1603년~1868년) 말기부터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까지 조업한 연방식 노보리가마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3년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가마 위치와 주변의 공방터 상황 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마터 위치와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공방터가 있었음을 알려 주는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사에 근세부터 근대에 이르는 세토 요업의 발자취를 느껴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산업 유산입니다.



## 9 호라 혼교가마(시지정 문화재)

예전의 가마터인 신사 내의 오쿠호라가마(히가시보라 A가마터)에서 조업했던 연방식 노보리가마를 1949년에 부분적으로 이축한 것입니다. 1979년까지는 실제로 이 가마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토에서 이처럼 노보리가마 본체가 남아 있는 전례가 거의 없어 매우 귀중합니다.

